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8월 뉴스레터 vol. 67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물 '채비물' 사용설명서와 8월의 추천 상품 안내

채우고 비우고 제주에서 '다크투어'를 하다

알쓸신장 유언장의 종류

숫자로 보는 채비 의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이란?

메멘토모리 마지막 경고

조합소식 채비 전용 온라인 추모관 오픈

사회적경제 온라인 상호거래 플랫폼

채비몰 오픈!

품질 좋고 가치있는 제품을 실용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www.coniaworld.com/handure

Q: 채비몰이 무엇인가요?

A: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 상호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Q: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A: 35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180개와 일반기업의 상품 등 총 천여개에 가까운 제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Q: 채비몰에서 사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채비몰은 조합원의 '관심사' 중심으로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매와 소비를 촉진 시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중에 없는 제품이거나 온라인 최저가를 지향하여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Q: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A: 최저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몰로 운영하다 보니 회원 가입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비몰 사용 설명서

1. 채비몰 입장

<https://coniaworld.com/handure>

≡

채비MALL

베스트

신상품


추천상품

chaebimall


8월 추천 상품

#여름 #시원 #건강


채비몰이 엄선한 상품으로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자연락
자연락 나박 물김치 HACCP 전라도 100%
국내산 시원한 나박김치 2kg



중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
약초마을 전통비법 100% 국산 콩국수가루
고압로스팅 여름별미 간편식



(주)한마당
메밀숙면 비빔막국수(풀깃한 국내산 100%) /
1인분 9,500원 /3인분 25,000원



즐거움막국수
메밀숙면 100% 메밀면
즐거움막국수(1인분 9,500원 /3인분 25,000원) /풀깃한국내산 100%

채비몰에 입장하면 입점한 상품 중에서 테마별로 선별하여 구성한 제품이 보입니다.

채비MALL

≡

베스트

신상품

추천상품

상단의 메뉴를 통해 전체 상품을 둘러볼 수 있고, 직접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어요.
제품의 가격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로그인 한 회원에게만 가격을 노출하는 폐쇄물 정책때문입니다.
온라인 최저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격이 노출될 경우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때문입니다.

채비몰 사용 설명서

2.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부터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 입력

아이디 *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

영문 대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중 2가지를 포함한 8~20자

비밀번호 확인 *

영문 대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중 2가지를 포함한 8~20자

이름 *

이메일 *

@

직접 입력

휴대폰 번호 *

--


인증번호 요청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인증하기

회원가입은 아이디,비번,이름,이메일,휴대폰 번호로 가능합니다.

3. 상품 구매



자연락

자연락 나박 물김치 HACCP 전라도 100% 시원한 나박김치 2kg

회원가

72,400 원

상품 문의하기

배송구분

택배배송

배송유형

개별

배송비

무료배송

자연락 나박 물김치 HACCP 전라도 100% 국내산 시원한 나박김치 2kg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시면 회원가와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품 발송은 구매 즉시 판매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어 해당 상품 배송일정에 맞춰 배달됩니다.

채비몰에서 판매된 상품의 수익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관심과 추천 바랍니다.

제주에서 ‘다크투어’를 하다



7월 초, 여름휴가 겸 제주를 찾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와 봤으니 5년 만이었다. 마침 묵는 곳이 조천면 북촌리였다. 이곳은 현기영 소설 <순이 삼촌>의 배경이 되는 마을이다. 북촌리는 제주 4·3 사건 당시 가장 많은 주민이 토벌대에 의해 학살당한 지역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리고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2009년 ‘너븐송이 4·3 기념관’을 세웠다. 사건 발생 60년 만의 일이었다. 너븐송이는 ‘넓은 돌밭’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너븐송이’를 살펴본 다음 날 지인들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았다. 예정에 없었는데 뜻밖에도 가보지 않겠냐는 지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곳은 4·3사건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기 위한 평화·인권기념 공원이다. 2008년 3월 28일 개관하였다. 공원 안에는 기념관, 위령제단, 위령탑, 봉안관 등이 있다. 기념관을 빠져나오는데 긴 회랑의 천장과 양 벽면에 희생자의 얼굴사진이 붙어 있었다.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이 몰려왔다.

조천읍 선흘리에 낙선동 4·3성이 있다. 1948년 11월 20일 선흘리가 초토화 작전으로 불타버리자 살아남은 주민들이 낙선동에 돌로 성을 쌓고 집단 거주했다. 1949년 4월 성이 완공되자 선흘리 주민들은 겨우 들어가 잠만 잘 수 있는 함바집을 짓고 집단생활을 했다. 일종의 수용소나 마찬가지였다. 동행한 이가 ”비가 오면 똥오줌이 넘쳐흘렀다“고 전한다. 낙선동 성은 4.3 당시 축조된 성 가운데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게토’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었다.

어쩌다 보니 ‘다크투어’를 하게 된 셈이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다크투어리즘’을 하고 있었다. 동쪽에는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항일기념관, 너븐송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제주 4·3평화기념공원, 다량쉬굴이 있고, 서쪽으로는 큰널개, 알뜨르비행장, 섯알오름 학살터, 송악산 진지동굴, 정방폭포 학살터, 제주오라동 4·3길, 무명천 진아영 할머니 삶터 등이 있다. 나는 이 가운데 고작 세 곳을 돌아보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유적지도 다 가보고 싶다.

서귀포시 안덕면 언덕에는 멋진 건축물이 우뚝 서 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해 유명해진 본태박물관, 전통과 현대의 공예품을 통해 인류 공통의 아름다움을 탐색할 목적으로 2012년 건립되었다. 본태(本態)는 본래의 모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전통문화와 세계적인 현대 미술작품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탐색하고자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뿐 아니라 교육 세미나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례업에 종사하는 나는 이 박물관 제4관이 흥미로웠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상례를 접할 수 있는 ‘피안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_상여와 꼭두의 미학’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상여 관련 부속품인 꼭두와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상여를 볼 수 있다. 총 430점의 상여 관련 부속품인 꼭두와 더불어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상여, 용마루, 용수판, 영여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옛사람들의 상복도 접할 수 있다. 내가 “상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해설사는 한쪽 벽을 등지고 서 있는 1미터 정도의 남녀 목각인형을 가리켰다. 남자는 갓을 쓰고 청색 두루마기에 녹색색 바지를, 여자는 족두리를 쓰고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었다. “저건 혼례복 같은데요?”라고 하자 해설사가 빙긋이 웃으며 “우리 조상들은 혼례복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수의로 있었어요” 한다.

나는 전통 상여를 보고 놀랐다. 흔히 봐온 단순한 형태의 꽃가마가 아니었다. 이 반영구적인 상여는 모두 목재를 사용하였고 단청을 하여 호화롭게 꾸었다. 승천하는 용과 부리부리한 눈으로 앞을 주시하는 닭, 좌우에는 다양한 모습의 인형과 학이 둘러섰다. 이 상여는 망자의 성(性)에 따라 달리 꾸몄다고 한다. 그래서 해체가 가능한 조립식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장례를 땅으로 시집 장가가는 날로 보았다. 그래서 혼인 때 입었던 혼례복을 수의로 쓴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는 ‘참최복(斬衰服)’이라 하여 망자가 아닌 상주가 입었다. 부모를 여읜 자식은 죄인이기에 거친 옷을 입었던 것이다. 요즘은 상주나 문상객 모두 검은 옷을 입는데 예전의 상주는 흰 상복을 입었다. 세상이 바뀌니 장례도 바뀌겠지만 수백 년 이어온 정신만 살렸으면 좋겠다. 요즘 장례에 무슨 의미가 담겼던가. 다양한 표정의 해학 넘치는 꼭두 인형들을 바라보니 절로 웃음이 났다.

제주 4·3 때 희생당한 사람은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족들은 초상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70여 년을 숨죽인 채 살아왔다. 어처구니없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원혼을 상여에 실어 해원하는 날을 볼 수 있을까. 본태박물관을 빠져나오며 커다란 상여를 수천 명이 울러 매고 상여소리 우렁차게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유언장의 종류



01

녹음에 의한 유언

ex) 음반, 테이프, 필름, 비디오 동영상 촬영 등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 1명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형태의 유언으로 음향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을 해야 합니다.



0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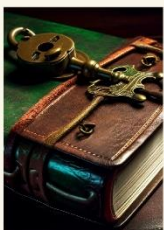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과 작성일자,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하며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0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0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0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 작성 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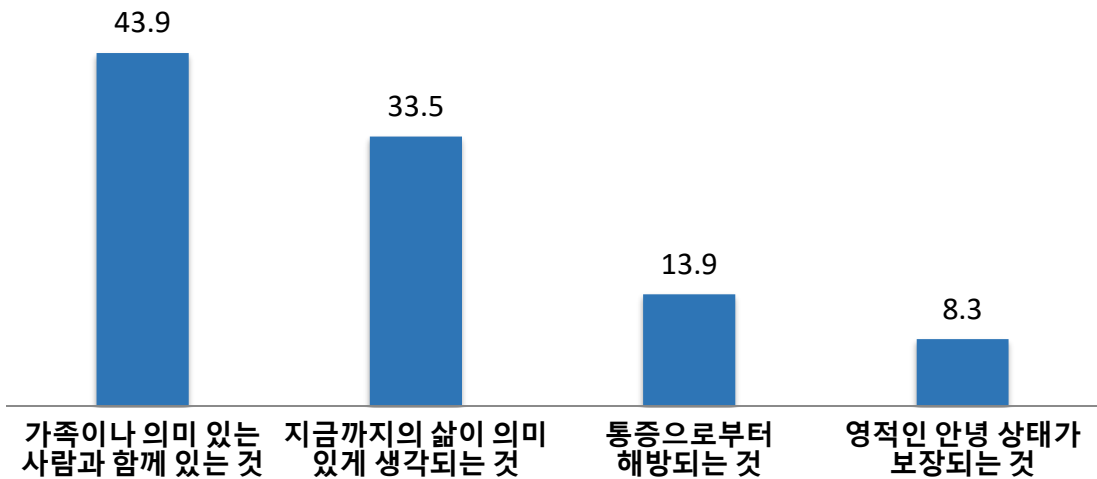
- 01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그 외의 4개 항목은 날인 혹은 서명이 요구됩니다.
- 02 유언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가장 마지막 날짜에 만들어진 유언을 따릅니다.
- 03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릅니다.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의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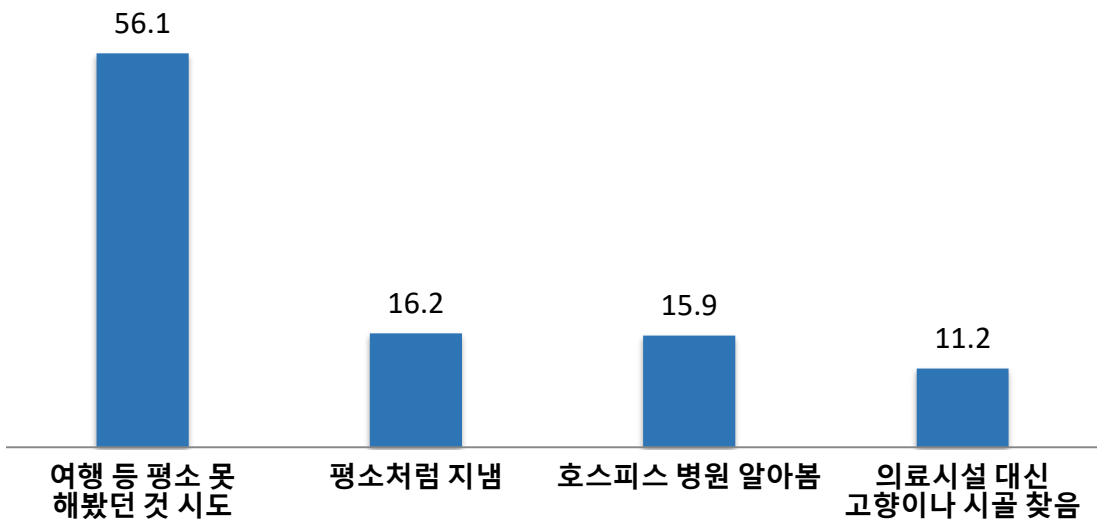
‘좋은 죽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의사 대상,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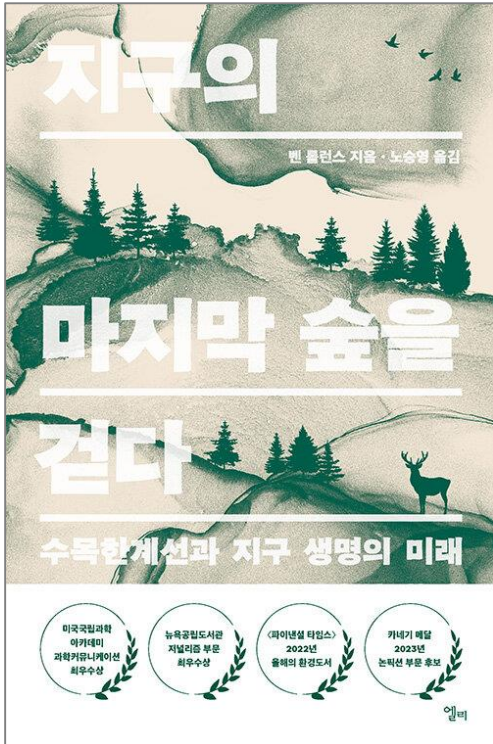
임종이 임박했을 때 하고 싶은 것,
평소 못해봤던 것 시도해보고 싶다, 56.1%

임종이 6개월 남았다면 하고 싶은 것 (의사 대상, 상위 4위, %)



*자료 출처: 헬스조선, 임종 6개월 전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의사들 생각은...], 2023.06.15. (인터엠디 의사 회원, 1,000명, 2023.06 조사)

마지막 경고



지구의 마지막 숲을 걷다

벤 롤런스 | 엘리

수목한계선이란 고산 및 극지에서 수목이 생존할 수 있는 극한의 선을 뜻한다. 저자 벤 롤런스는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에 방문해 지구 최북단의 수목한계선을 이루는 ‘북부한대수림’을 찾는다. 그곳에서 식생, 동물, 기후, 영구동토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만나고, 사미인, 돌간인, 퍼스트네이션 등 서구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영향이 미치기 전부터 북극권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를 찾아 그들의 생활양식을 들여다보며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핀다.

가장 주요하고도 인상적인 풍경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지구 북부에선 숲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결과물로 대표되는 이미지 ‘불타는 아마존 우림’만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급한 현실이 아니다. 흰색의 북극이 초록으로 변하고 있다.

수목한계선이 몇백 년에 수십 센티미터가 아니라 해마다 수백 미터씩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지표면의 5분의 1을 덮고 지구상의 모든 나무 중 3분의 1이 거주하는 북부한대수림은 바다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한 생물군계다. 아마존 우림이 아니라 북부한대수림이야말로 ‘지구의 진짜 허파’다. 그러한 숲이 풍요로워지며 수목한계선이 확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나무의 번성에 그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지구가 따뜻해지며 빙하가 녹으니 나무가 뿌리내릴 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미생물 활동이 증가해 대지의 온난화,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된다. 나아가 속도를 높인 지구온난화로 영구동토대가 녹아 그간 저장돼 있던 메탄가스가 전격 방출될 시 지구에 건잡을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무가 건네는 것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경고다.”

스코틀랜드에 방문한 저자는 울타리 처진 한 보호구역에서 외롭게 서 있는 ‘할머니 소나무’를 맞닥뜨린다. 구주소나무 고목이 홀로 서 있는 것은 소나무 줄기와 잎을 먹이로 삼는 사슴이 늑대 등 최상위 포식자가 전무한 이 숲에서 번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노르웨이 순록의 개체수를 늘려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야 하는 현실 또한 그린다.

숲은 단순히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국한돼 그 안에서만 생태계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독립된 공간이 아니다. 숲은 나무의 광합성과 증발산을 통해 비를 제조하고 바람을 생성해 전 지구의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바다와도 연결돼 있다. 해양 먹이사슬의 기반인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하기 위해 필수 촉매인 철을 필요로 한다. 이렇듯 숲은 지구를 구성하는 다른 생명, 다른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에 기후변화에는 언제나 복잡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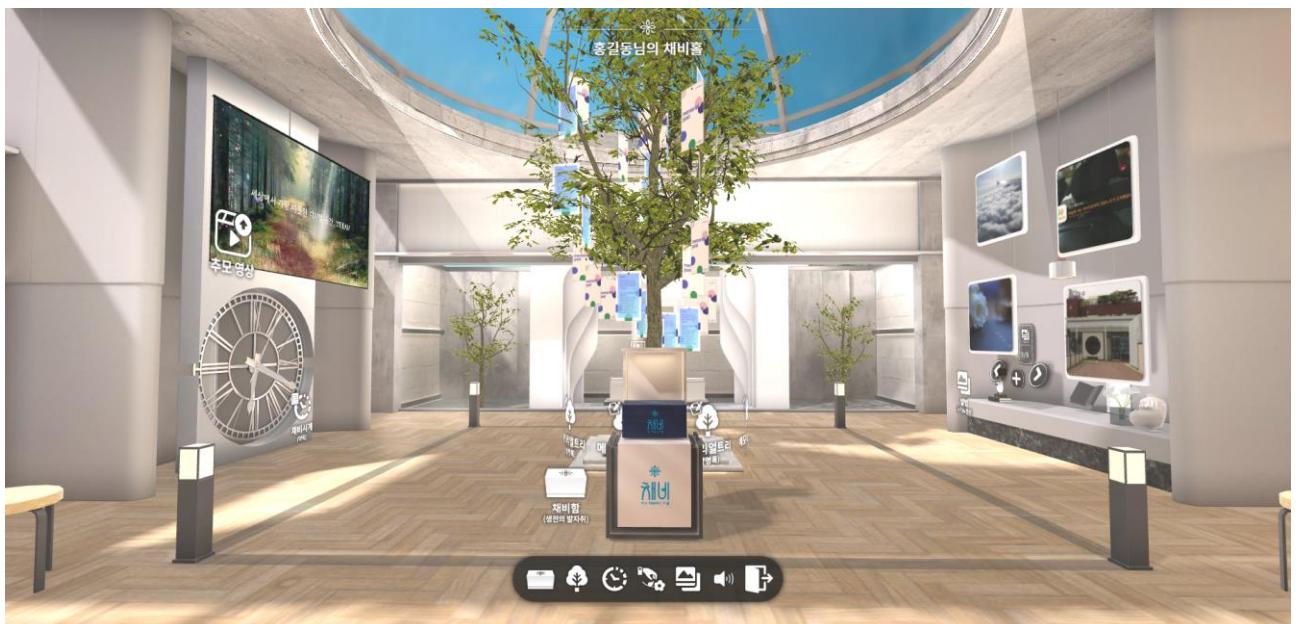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채비 전용 온라인 추모관 오픈

채비장례가 메타버스 가족스토리공유플랫폼 및 온라인 장례식장 서비스를 하는 '더블유위안' 과 업무협약을 맺고 '채비온라인추모관'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습니다.

'채비온라인추모관'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제작한 '엔딩노트'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고인과의 이별을 미리 준비하며 스토리를 기록(영상, 사진, 약력, 장례계획 등)할 수 있으며 고인 유고 시 실시간으로 지인을 초대해 온라인상에서 조문받을 수 있다. 또 고인을 추모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장례 후 가족 추모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비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2023년 7월

한재연 조합원 부친상
우진교통 류성열 모친상
권대순 조합원 빙부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미정 조합원 부친상

황별 조합원 부친상
한겨레신문사 박민애 시모상
박승정 조합원 부친상
정미숙 조합원 모친상
김정희 조합원 모친상

백숙희 조합원 모친상
장창덕 조합원 모친상
이진민 조합원 지인상
동행 문은옥 시모상

2023년 6월

최인오 조합원 시부상
안수영 조합원 부친상
한재연 조합원 시모상

김동욱 조합원 배우자상
정이환 조합원 모친상
김진주 조합원 시모상

김선희 조합원 모친상
홍성표 조합원 모친상

2023년 5월

남은자 조합원 배우자상
주대환 조합원 부친상
백원선 조합원 부친상
김대산, 김윤채 조합원 부친상

임동선 조합원 부친상
박영조 조합원 부친상
강봉우 조합원 본인상
김지태 조합원 모친상

송원진 조합원 빙모상
전영희 조합원 모친상
권필숙 조합원 배우자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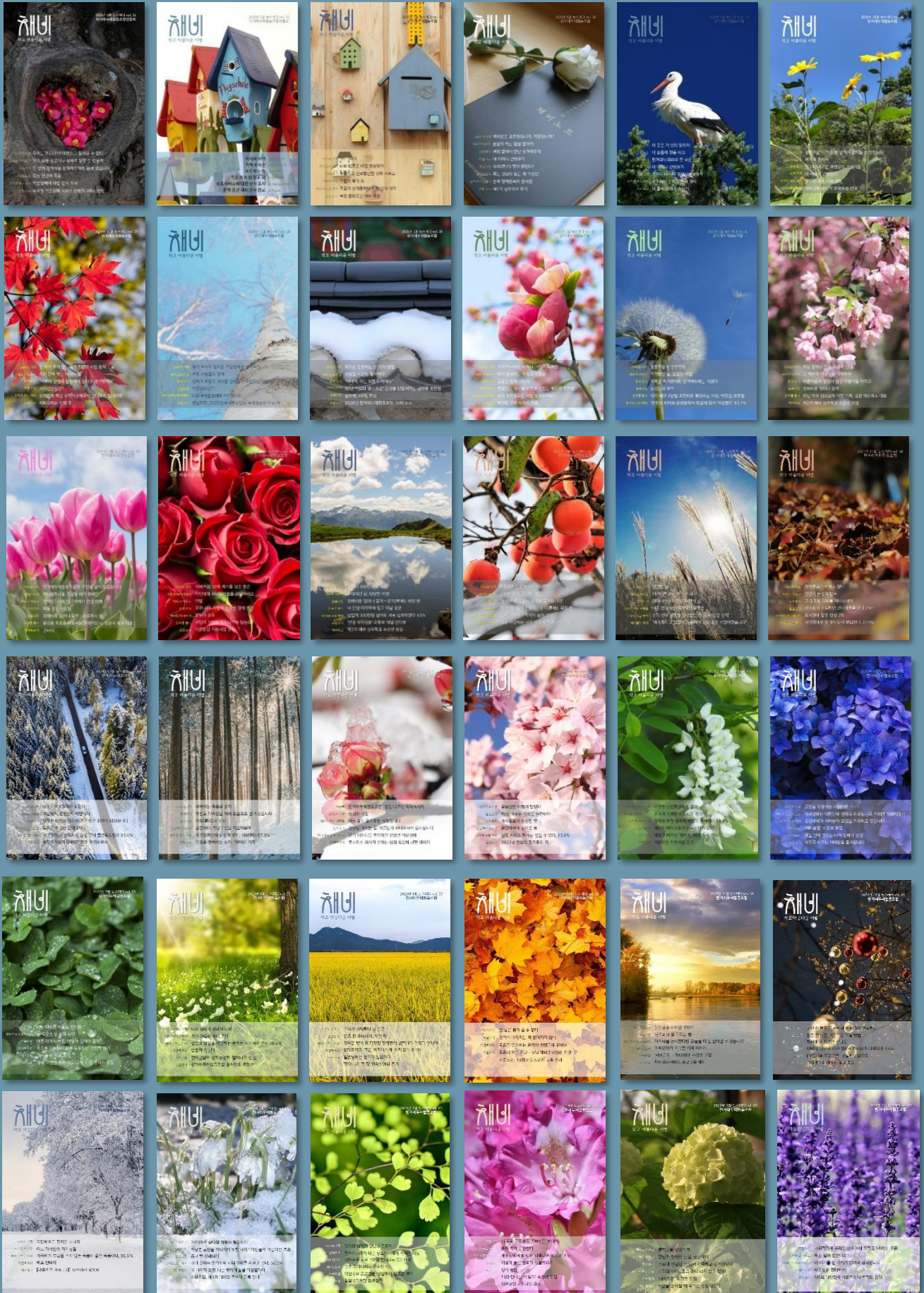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